

대전교육청, 학교밖 청소년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

김금란 기자 | 승인 2020.03.10 10:35

[중부매일 김금란 기자] 대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'의무교육단계 미취학·학업 중단학생 학습지원'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.

학업 중단 이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.

대상은 만9세 이상~만24세 이하로,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, 입학 했지만 학교에 장기간 다니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.

위탁교육기관인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, 자격 증 취득 등의 학교 밖 학습경험과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교과교육과정 이수,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시간 등을 학습시간으로 인정받는다.

연 2회 실시되는 대전시교육청 학력심의를 통해 초등·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고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하다.

저작권자 ©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금란 기자